



Conference for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harismatic Renewal Korean Language Track - June 23, 2007



On June 22nd, the 40th Anniversary of the Charismatic Renewal was held at the Meadowlands Exposition Center in Secaucus, New Jersey. The keynote speakers included Bishop Sam Jacobs from the Houma-Thibodaux, Louisiana archdiocese who serves as chairperson of the Bishop's Committee for the Charismatic Renewal. Also, Pablo Bayona, a Catholic layman from the Diocese of Brooklyn, and Msgr. Joseph Malagrec, a priest of the Diocese of Brooklyn in New York. The diverse makeup of this conference included over 2000 people, a large proportion being minorities including Filipinos, Hispanics, Haitians, and Koreans.

The following day, the Korean attendees participated in a specialized seminar called "Life in

the Spirit Seminar." It began with a special witness session, "How My Life Has Changed," by Michael Kim from Seattle, Washington. It was followed by a speech labeled "40 Years of Renewal" by Bishop Sam Jacobs. "40 Years of Renewal" emphasized two main topic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Jesus Christ, and God's mission. The next guest was Mr. Hong Cho, a current student in seminary school, who shared his thoughts regarding God's grace.

The morning session concluded with a speech by Fr. Jung Soo Kim labeled "40 Years of Desert Experience."

The afternoon session began with Fr. Tai Su Jon discussing his thoughts regarding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A mass served by Fr. Simon Nam concluded this day's afternoon session.

Sunday morning, June 24th began with mass served by Msgr. Joseph Malagrec. The conference concluded shortly afterwards at noon. This year's "Charismatic Renewal," being the 40th anniversary, was extraordinarily filled with praise and the Holy Spirit throughout the weekend.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재미 쇄신 가족 여러분에게 산천 초목이 활개치는 여름의 인사를 드립니다.

-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40주년 전국대회 -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40주년을 맞아, 우리 KSC가 준비위원회의 일원으로 참가한 가운데, 40주년 전국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21세기를 향하여

전개될 새 복음화 운동의 비전과 함께 40년 전 듀케인 대학에서 청년 학생들에게 내리신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재현하는 청년 선교와 대학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각 민족이 다양한 언어와 노래로 하나의 주님을 찬미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대회와 함께 열린 한인대회 (Korean Language Track) 는 동북부 봉사회가 담당하여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KSC를 대표하여 동북부 봉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 6차 LSS 청년 봉사자 훈련 -

KSC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장차 우리의 대를 이어갈 청년 학생들을 LSS의 새로운 팀 봉사자로 교육하는 일, 각 대학 교정에 학생 기도회를 구성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8월 17-19일에 열리는 LSS Young Leaders' Workshop VI에 참가하는 장래 봉사자들을 위하여 부디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복음 선교 교육원 (EEC) 사도 요한의 집 -

김 철환 (KSC 후원회 총무)의 선도로, 복음 선교 교육원이 마련되어, 2007년 7월 7일, 우선 KSC 사무국이 임대료 없이 무임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우리 KSC는 이 집을 복음 선교의 어머니이신 과달루페 성모님께 봉헌하고 이 집에 성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의 집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도 요한의 집은 미주 한인 복음 선교 서부 교육 센터로서 작은 규모의 복음 선교 봉사자 교육과 기도회 봉사자 훈련에 활용 될 것이며 관리원장에는 이택 (KSC News 편집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많은 기도와 지원을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집은 주로 영어권 1.5 - 2세 청소년들을 위한 집중 교육 센터로서 Young Leaders Workshop Seminar를 소규모로 계속 해 나감으로써 영어권 청소년들의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기도회 자원 봉사자 훈련 센터로 활용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집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등의 살림 용품, 책상, 의자 등 사무 집기, 그리고 회의실 내부 설비 공사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KSC Communication
130 67th Ave. Ct. E.
Tacoma, WA 98424

Ph. 253-223-8775
Fx. 253-663-4407
TAIK2000@hotmail.com

으로 연락 주십시오.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쇄신되는 본당 되기를...”

6월 27-29일, 토론토 한 맘 성당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서 처음으로 열리는 많은 인원이 참석한 큰 잔치임에도 본당 기도회 봉사자들의 기도와 준비, 그리고 근처 2개 본당의 협조로 번잡함 없이 차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본당 기도회원들은 이번 세미나가 여러 가지가 요구되는 행사들과는 달라서 서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쉽고 편안하게 봉사를 하면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함으로써 신선한 감동이 전해졌다. 2조로 나뉜 25명의 청년 참석자들은 그 동안 평소에 기도회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던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셨다고 감사했다.

세미나 후 본당 전 신자들이 참석하여 진행된 은혜의 밤에서는 세미나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으로 풍성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토론토 한 맘 성당 270여 신자들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평화를 마음 속 깊이 누렸다. 6월 27일(수)부터 30일(토) 까지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한 성령 안의 삶 세미나에서였다.

보스톤에서 사목을 시작한 정 광호 신부와 KSC 회장 이 창재 부제의 지도로 진행된 세미나는 본당에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과견 미사 후 최 규식 본당 신부는 신자들의 신앙을 재발견 할 수 있었던 세미나에 감사하며, 매년 세미나를 실시하여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우들로 하여금 성당이 쇄신되기를 기원했다. 최신부는 KSC 전국 봉사 팀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07 쇄신 세미나 일정

일자	행사명	주최 (협조)	문의
8/2 - 4	성령 안의 삶세미나	달라스 본당	민 라파엘 214-651-9150
8/17 - 19	Young Leaders Workshop Seminars	KSC	이 은경 253-223-8775
8/19 - 22	동남부 8차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남부 봉사회	심 에밀리아 407-927-8080
8/31 - 9/3	성령 안의 삶세미나	디트로이트 본당	조 용광 313-319-3364
9/9 - 12	성령 안의 삶세미나	동중부 봉사회	최 데레사 443)717-0886
10/19 - 21	성모 신심 세미나	KSC	이 은경 253-223-8775
12/26 - 29	Young adult Life in the Spirit Seminars	동남부 봉사회	심에밀리아 407-927-8080

말씀의 선포는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계획, 선교자의 사명을 다 하자



샘 제이콥스 주교,
미국 주교회의 성령 쇄신 회장.
성령 쇄신 40주년 기념 대회 한인 강론 번역.

사제 생활 5년 쯤 되었을 때, 나는 뭔가 잃어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제 생활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자로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선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새로운 선교에 대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방법과 표현과 열정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선교를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반드시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주

선교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잘 하고 있었고, 인기도 있었지만 내 가슴에는 뭔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과연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변하지 못한다면 화만 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제가 될 것 같은 기분에 하느님께 과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보스톤에 가서 처음으로 기도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저희 본당 수녀님들이 계셨습니다. 수녀님들께 성령 신부님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들과 만나기를 청했고, 약 15명이 모여 2시간에 걸쳐 성령안의 삶 세미나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 때가 바로 그 세미나 중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너는 나의 힘이 아닌 너의 힘으로 일을 하고 있다. 너는 나의 영이 필요하므로 너의 삶이 내 안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고 성령을 받아 들이자 나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강론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전하는 말씀이 되어 더 경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과 면담을 할 때에도 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안수를 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었습니다.

내 자신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오늘 사제로 남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화 잘 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늙은 신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찬미를 드립니다.

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선교는 주님의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 잘 따라 할 때라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방법들을 고안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로지 성령의 힘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중략)

하느님의 유일한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은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부름 받은 이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중략)

선교의 바탕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이며 선교의 중점은 언제나 성령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써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략)

감사합니다

익명		\$200.00
김 영남	MN	\$500.00
토론토 한맘 성당	Canada CA	\$2,000.00